

아주대학교병원소식지

발행인: 李成洛 편집인: 徐廷鎬 편집: 아주대학교병원 홍보과 ☎ 219-2948

발행인의 편지

지난 1월11일에 있었던 의사국가시험은 의과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껍이나 마음을 줄이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88년에 첫번째 입학생을 받아들인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들이 어느새 졸업생이 되어 아주대학교의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사국가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의 공인된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시험이라 일부 대학에서는 시험 그 자체만을 위하여 임상실습이 단축되고 단체합숙까지 주선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 교육의 방법마저 정당화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첨단과학의 도움으로 의학의 발전이 급속해지면서 교육도 자칫 지식과 기술의 전수에 급급해 질 우려가 있기에 의과대학이 의료인으로서의 따뜻한 심성과 인격수련을

위한 병원봉사실습제등의 인성교육을 국내 처음 실시했던 정신을 상기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임상실습도 10월까지 받게하였고 단체합숙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은 끝나고 25일에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시험에 낙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성교육이니 병원봉사실습제니 하는 것들이 제도 자체의 본질과 다르게 시뭇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까했던 걱정이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의사국시 결과에 관계없이 학교의 방침을 묵묵히 따라준 어린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내심 준비해두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병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의과대학의 낭보이기에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심정의 일단을 전합니다.

李成洛



2월호

- 조화를 찾는 우리
- 기획실장
- 병원의 목표
- 행정처장
- 의과대학 설문조사
- 교학과장
- IHS를 소개한다
- 시설과장
- 병원장 칼럼

미 121후송병원 방문

바람직한 병원 기획 및 관리운영을 위한 아주대학교 병원 추진본부의 발걸음이 부산해지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추진본부는 지난해 현대중앙병원, 삼성의료원, 단국대병원 등 새로 증축하거나 신설하는 대형의료기관을 방문해 그곳의 장단점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26일 미 8군 121후송병원을 방문하여 미국식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직접 보고 돌아왔다.

아주대학교 병원 추진본부의 입장에서 121후송병원을 방문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응급의료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소문대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장비와 함께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21후송병원이 아주대학교병원처럼 임상과목 전과를 갖추는 없어서 전문인력이나 첨단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121후송병원에 대한 답사를 다녀온 대부분의 병원관계자들이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곳이 설립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신설되는 병원 못지않은 내부의 청결함과 비품의 전실한 정리상태등 관리에 있어서의 철저함이었다면서 앞으로 아주대학교병원도 병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21후송병원의 방문단은 추진본부장, 부분부장, 간호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등 15명이었다. 한편 121후송병원의 관계자들은 답방의 형식으로 2월7일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아올 계획이다.

의사국시 전원 합격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 전원이

지난 1월11일 개최된 제57회 의사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발족되고 첫번째로 시행된 이번 의사국가시험은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지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에서는 첫번째 졸업생들이 치루는 시험이란 점 이외에도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병원실습봉사제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도 간접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의 교수등 많은 관계자가 주의를 기울인 시험이었다.

전국 6개도시에서 분산 시행된 이번 시험의 총 응시자는 2천9백81명이었고 평균 합격률은 97.4%로 76명이 불합격했다.

조유숙 간호사 수석

아주대학교병원 추진본부의 조유숙간호사가 미8군 121후송병원에서 실시된 기본심폐소생술 강사과정 필기시험분야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응급의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병원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월11일부터 삼일간 개최된 미국 심장협회(AHA) 주관의 심폐소생술 강사과정에 병원운영2부는 박미미, 조유숙, 노경식 수간호사를 파견하여 과정을 치루게 했는데 조유숙 간호사가 필기시험에서 영광을 차지한 것. 이번 심폐소생술 강사과정에는 21명의 미국인과 아주대학교병원의 수간호사 3명등 24명이 참여했는데 본 병원의 간호사들은 강사과정 이수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성있는 심폐소생술을 전 병원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련받게될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5일 의학관 2층 제5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있게 될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장님의 인사에 이어 서로 상견례를 가진 후 초발심자란 주제의 병원장 특강이 있게 된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의 아주대학교병원의 발전계획 소개에 이어 내과, 일반외과, 응급실의 근무지침과 간호부에 대한 설명, 인턴시절의 회고(이영문-용인정신병원)를 듣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교수동정

*李成洛 추진본부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국가에서 개최되는 아세아피부과학회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월7일 출국 13일 귀국한다. *徐光煜씨(의대 전임강사)= Post-graduate Teaching Course 연수를 위해 영국 런던에 소재한 St. Mark Hospital로 지난 14일 출국했다. 3월6일 귀국할 예정. *朴洪俊씨(의대 조교수)=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국제 이비인후과 기초연구학회에서「안면신경 손상후 신경세포 재분포」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를 위해 2월4일 출국한다.

이런 모임 저런 만남-병원합창단

소리로 하모니를 이루어 마음을 같이하자는 병원합창단이 발족된 것이 93년12월1일. 학장님과 여러 의대교수님등 20여명이 모여 캐롤송을 들으며 이영희 선생에게 지휘봉을 안김으로서 병원코러스의 막이 올랐다. 매주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한 노력을 한 끝에 지난 12월21일 크리스마스파티와 송년회를 겸한 자리에서 우리 합창단은 O! Holy Night 와 사랑의 종소리 두곡을 불렀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소망에 찬 아주대학교병원의 발전을 빌면서 합창단의 마음처럼 깨끗한 병원, 친절환 병원, 인간의 정성이 배어있는 병원이 되기를 기원했다.

합창단이 결성된 계기는 우선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뜻을 이룸으로서 단합된 병원상을 보여주자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에게 노래를 통하여 따뜻한 마음과 신뢰를 전해주자는 뜻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직원간의 화합을 가져와 대학병원중에서도 정말 수준있는 병원상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 아주대학교병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이제 아주대학교병원에는 많은 식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합창단은 신규직원의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50~60명의 단원으로 병원개원을 축하하기 위한 합창발표회를 10월쯤에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매주 화요일 12시에 한시간씩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여기에 지휘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발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연습은 새로운 소리를 낼수있게끔 만들것으로 확신한다. 요즈음은 Londonderry Air와 보리밭이란 곡의 편곡을 준비하여 음악성을 지니면서 하모니를 잘 이룰수있게끔 연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합창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물론 직접 참여를 해주시길 진실로 바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주대학교 병원인이 되기위해서 모두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단원은 강도영, 김기성, 김미아, 김정란, 김준삼, 김한수, 김형일, 남궁창, 박연옥, 백설경, 송호범, 신미정, 안병화, 양정숙, 이성은, 오은영, 이은경, 이향래, 조명희, 조유숙, 조혜성, 하태용, 함형미씨 등입니다.

남궁창 약제과장

조화를 이루는 서로가 되자

사무실에서 어느새 우뚝 솟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병원건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피로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금 희망에 차게된다. 우리병원은 8백병상 규모의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순수 병원공간만도 2만2천여평으로 진단방사선과, 임상검사실을 위시한 각종 검사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치료방사선과, 재활의학과등 진료지원 및 특수치료부서등은 1천병상 규모의 일급대학병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장비 및 시설도 최고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그 수준에 맞도록 구비하고 있고 인력도 국내외에서 훌륭한 분들을 초빙하여 일급대학병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였다. 여기에 추진본부의 직원들은 보다 좋은 대학병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나는 새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평소 친면이 있는 자동차회사 공장장에게 좋은 차를 뽑아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그때 그 회사 판매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회사의 높은 분께서 차를 부탁하여 최고의 부품만을 골라서 차를 조립한적이 있는데 그 결과 꼭 최고의 차가 되지 않더라는 말이었다. 즉 아무리 훌륭한 한부분 한부분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의 효율을 낼수 없다는 뜻이었다.

병원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갖게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병원이 일급 병원이라는 것은 시작단계나 마무리에서나 부동의 사실이다. 문제는 일급 병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과 비싼 장비와 시설, 훌륭한 의사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아주대학교 병원이 지향하는 목표에 비추어 볼때 물론 중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급 병원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닌것이다. 그렇다면 충분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조화일 것이다. 즉 조화를 갖춘 기획과 운영이 중요하다. 병원 근무자 서로간의 믿음과 협조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 최첨단을 자랑하는 병원 건축과 이를 실제 운용해야 할 인간과 물질과의 조화, 또 우리가 직접 환자를 대하면서 진실로 환자의 아픔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보여줘야 할 환자와 병원직원 간의 조화 및 각 임상부서간의 조화, 이 밖에도 우리 모두가 일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고있다는 경영에서의 조화등 기타 여러가지 조화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와 진료, 연구, 교육 모든 측면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 병원의 등급은 매겨질 것이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명실상부한 일급병원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있음을 느끼고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돈이란 물질의 투자로만 해결될 수 없음을 또한 인식하고 있다.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모순에 봉착할 것이다. 또 현재같은 의료보험체제 아래에서 경영적 측면을 무시하고 무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

이런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우리자신이 자발적으로 몸을 실어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徐廷鎬 기획조정실장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감한 자기혁신을 하자

일반적으로 좋은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조건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좋은시설로서의 훌륭한 건물과 첨단의료장비가 있어야 하며, 둘째는 뛰어난 의술을 베풀 수 있는 의료진과 더불어 이러한 의료진을 보조지원하는 각 분야의 인력이라 하겠다. 셋째는 이러한 조건들이 균형적 조화를 이루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가 행해지는 한편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임상이 뒷받침 될 때에 통상적인 좋은병원이 될수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원을 목적에 둔 입장에서 우리의 병원을 생각해 볼 때 그 좌표가 어떻게 결정되어가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다. 출퇴근 할 때마다 한 번씩 올려다 보게되는 병원건물, 개원을 앞두고 점차 그 위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병원 건물은 누가 보아도 당당하고 훌륭한 시설임에 틀림없다. 의료장비 또한 최첨단으로 구비되고 있으니 시설장비 면에서도 좋은병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겠다.

그러면 의료진은 어떤가? 우수한 인력으로 특별히 선정된 팀으로 구성되었으니 새삼스러운 설명이 더욱 필요없는 것으로 확신되며 기타 지원인력도 전국적으로 가려 뽑은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니 역시 우수한 분들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우리 병원의 위치는 양질의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고대하고 있는 80만 인구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적 여건까지도 간직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조건중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하고 간호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간직하고 얼마만큼이나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장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다. 좋은 시설과 우수한 인력은 갖추었으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인성이 결여된 그런 보통의 병원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바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보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다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더 멀리 미래를 직시하며 현재의 여건에서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감한 자기혁신을 하고 환자중심의 병원체계에서 새롭게 봉사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노력할 때에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우리의 병원이 탄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상이다.

친절한 병원을 주제로한 추진본부 여직원 간담회가 선인재에서 지난 1월 10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의 확신에 찬 뜨거운 열정과 하겠다는 자신감에 불타는 도전의 의지를 보고서 우리가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실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투지의 마음들이 뭉쳐지고 다져지면서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팡파레의 메아리가 요원의 불길처럼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朴弼煥 행정처장

Can Eight Words Make a Better Worlds?

Doctrines,
 credos,
 manifestos,
 laws,
 declaration,
 codes of ethics.
 Ever since
 people
 have been
 able to communicate,
 they have compiled
 words to live by.
 But the world
 is still troubled.
 Take this words:
 honesty,
 workmanship,
 ambition,
 faith,
 education,
 charity,
 responsibility,
 courage.
 Chances are
 four and a half
 billion people
 won't agree to
 live their lives
 by them.
 But think how
 much better
 your life
 would be if
 just one person does.
 You.

원칙,
 신조,
 성명,
 법률,
 선언,
 윤리규정.
 인간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부터
 살아나가기 위한 말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까지 트러블 뿐입니다.
 이런 말을 끄집어 내어 봅시다.
 정직,
 기능,
 야망,
 신념,
 교육,
 자선,
 책임,
 용기.
 이런 단어들에 의지해서
 45억에 이르는 인간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 가지는
 않을 것이지요.
 그러나
 단 한사람이라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삶은 얼마나 더 좋아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당신이.

8개의 단어가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의 밤은 어떠십니까?

추진본부의 밤은 저녁 6시30분 선인제의 저녁식사로 부터 시작된다. 6시가 지나면서 동료들이 집으로 발길을 돌려도 집으로 가지 못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 공부를 못해 보충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니건만 거의 자발적으로 (실은 자의 반 타의 반이겠지만) 집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병원 개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느껴지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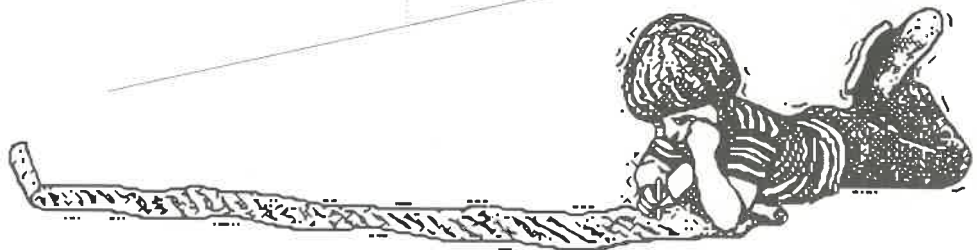
보통 각부서에서 한두명은 추진본부의 밤과 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부는 선인제 주인장이 나긋나긋한 말로 따뜻하게 내어오는 음식도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겨지는 듯 표정이 밝지 못하고 일부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먹고 하자는 것인지 식사를 대하는 표정에 유쾌한 웃음마저 없다.

단골로 남는 멤버를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으뜸이다. 기획과 예산계는 무슨 할일이 그리 많은지 정시 퇴근은 아예 드물다. 예산 편성 및 심의와 통제를 맞고있는 예산계의 경우 돈을 다루는 예민한 업무이어서인지 꼼꼼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편. 게다가 한푼이라도 절약하려 들라치면 부서간 중복요청된 항목은 그들 눈에 크게 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못보던 항목은 요청부서의 저의를 일단은 한번 짚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모두가 잘해보자고 달려붙은 일이건만 탐탁치 않은 구석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예산계의 시각인 것이다.

의료장비 기획부의 직원들도 늦게까지 책상을 마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신설되는 병원으로서의 구매 장비가 워낙 많다보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아마 같은 가격대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난 물건을 고르다보니 밤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다. 개원 필수장비인 근 2천4백여점에 달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부서와의 사양기종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제한된 예산내에서의 조정, 또한 정확한 구매의뢰에 이르기까지 의료장비기획부는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직원의 머리와 어깨를 상당히 무겁게 누른다고 한다. 2월말까지 이런 상황은 연일 계속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료장비기획부는 3월에 들어서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것 같다는 전망이다.

이밖에도 총무, 인사, 관리, 구매, 경리, 약제, 원무, 보험, 간호등 어느 부서 할것없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간은 급히도 지나가게 마련이다. 결국 일이 끝나지 않아도 내일의 근무를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은 밤 10시쯤. 현관문을 나서면 흰한 둥근달이 하늘에 걸려있고 직원 모두는 참으로 달도 밝다고 이구동성이다. 하얀 입김에 섞여나오는 이말이 신통맞은 푸념인지 근로후의 상큼함인지의 평가는 개원 이후로 미루어 놓은채 오늘도 의미있게 하루를 접고자하는 것이 추진본부의 밤이다.



“아주의대 지원학생들은 대학의 지명도보다 장래성을 선택하였다.”

- 1994학년도 의과대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신입생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신설대학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여러가지 과도기적인 제약과 지역성을 극복하고 강력한 지원동기를 창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대학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은 입시대책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입시대책의 요체인 지원동기의 제고를 위한 제도상의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홍보방안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수

집의 목적으로 '94학년도 의과대학 응시자를 대상으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문항의 설문중에서 주요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응답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아주대학교의과대학 선택에관한 문항에서 응시자 290여명중 60%의 학생들이 '신생 의과대학으로서의 발전가능성'때문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졸업후의 진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선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지원자의 대부분이 고득점자임을 감안할 때 대학의 지명도와 지역적인 위치는 의과대학의 경우 절대적인 고려사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의대의 발전가능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설문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대우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홍보를 대우그룹의 기업이미지와 연관하여 시행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택하게된 동기

- ① 학교 이미지가 좋아서 (5%)
- ② 신생의과대학으로서의 발전가능성 (60%)
- ③ 인턴, 레지던트가 보장될 것 같아서 (13%)
- ④ 본인성적에 맞는 대학을 찾다보니까 (15%)
- ⑤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서 (6%)

아주대학교를 대우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실에 지원에 미친 영향

- ① 영향을 주었다. (73%)
- ② 영향을 주지 않았다. (27%)

'아주대학교'와 연관되어 떠오르는 단어

- ① 대우그룹 (154명)
- ② 공대 (117명)
- ③ 수원 (51명)
- ④ 의대 및 부속병원 (39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알게 한 홍보매체

- ① 신문광고 (7%)
- ② 진학안내잡지의 기사 및 광고 (22%)
- ③ 고등학교 및 학원에 배포한 유인물 (57%)
- ④ 기타 (14%)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우그룹과 연관된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되나 신설의과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얻게되는 장점이 지원동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에 유의 한다면 신설대학의 이미지가 퇴색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대학의 지명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발전계획의 추진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홍보활동은 홍보매체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접촉빈도가 높은 매체를 찾아야 할 것이다. 홍보와 관련된 문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홍보매체는 아주대학교가 자체제작하여 고등학교 및 학원에 배포한 유인물과 학원에서 제작배포하는 배치기준표, 입시전문지 광고 등이며 일간지등의 신문광고는 의외로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대 효용의 관점에서 현재의 홍보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고교 방문과 홍보물 발송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관심있는 문항들의 설문응답을 간단히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아주의대 지원자의 과반수(56%)가 서울출신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울의 지원자 pool이 많은데 원인이 있겠지만 반대로 수원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수원지역 우수학생들의 확보는 현재 아주대학교 전체의 입시대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이 가져 올 홍보 효과를 활용하면서 수원 및 인접 수도권 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입시제도와 관련된 응답내용은 타 단과대학의 분석결과와 다소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의과대학 지원자그룹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의과대학 지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능성적 170점대의 경우 본고사 실시에 대한 수용도가 64.5%(전체: 63%)으로서 전체평균 45%를 크게 상회하며 아주대학교를 중상위권 대학으로 보는 경향 역시 수능성적 170-180점대 지원자 대역에서는 52-57%로서 150점대 대역의 39%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우수신입생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간의 홍보전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개교 20주년을 맞아 아주대학교는 200년까지 국내 5위권 대학에 진입하려는 의욕적인 T5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정책목표중의 하나인 우수신입생의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같은 목표는 적어도 의과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어야 할것이다. 94학년도 입시에 있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원자들을 대학의 지명도보다는 신설 의과대학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대학과 우리 교직원들이 앞으로 추구하여야할 목표를 극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

교학과장 송호범

病院 建築, IHS에 얼마나 접근했나?

효원의 도시 수원은 서울의 문화생활권에 속하면서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국내 5위권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웅대한 꿈을 갖고 있는 아주대학교가 한강 이남지역의 중추적 의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아주대학교 병원을 최신의 건설공법으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85%이상 진행중이므로 머지 않아 웅대한 병원모습을 완비하게 될 것이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건물이 살아 숨쉬는 첨단빌딩(병원)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기술을 투입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살아 숨쉬는 Intelligent Building(Hospital)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들인가 간단하게 소개하려 한다. IB(Intelligent Building)는 건축, 시스템, 서비스 관리의 4가지 기본요소의 최적화 및 이들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Intelligent Hospital Syste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Intelligent Hospital 은 첨단 정보 통신기술과 전자기술을 건축환경 기술과 융합시켜 Building의 이용 및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빌딩자동화(BA), 사무자동화(OA), 정보통신시스템(TC)이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 되어야 한다. 이러한 Intelligent Hospital인 아주대학교 병원 건축을 위해서 현재 공사진행(계획)중인 IB부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공조시스템은 가급적 진료단위 부서로 구획 계획 하였으며, 중앙관제실에서 원격으로 자동감시 제어를 할 수 있다. 청정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AHU(Air Handling Unit)에는 최고급 Filter를 사용하였다. 특히 수술실, ICU, 신생아실, 골수이식 병동등의 청정 공조구역은 Water Catch System 공조기를 채택 하고 실내에는 공기 토출측에 Hepafilter를 설치 하였으므로 매우 청정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Class 1000이하 유지). 이들의 운전관리는 물론 BA System에 의해 Auto Control이 된다.

중앙관제실에서는 BA, 방재, 소방, 방범, 에너지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자동화, 감시기능, 제어기능등을 완비 하였다. 실내외의 온도, 습도, 실내 CO₂ 오염상태등을 감시하고, 경보시설이 되어있으며 적절한 상태가 유지될수 있도록 공조설비들을 중앙제어 방식으로 운영 하게된다. 이에따라 에너지의 절약 및 쾌적한 실내 환경유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부서는 실내온도, 습도 및 CO₂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기록 및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수술실, ICU, 신생아실등은 병렬로 공조 시스템이 구성되어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공조가 가능 하도록 계획하였다.

전력감시제어, 조명제어도 원격감시 및 제어가 되므로 전력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절감효과가 크리라고 판단된다. 여름철 냉방 전력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빙축열 설비를 하였는데 이 또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매우 클것이다.

정보통신시스템 부분은 DPABX(전자식 사설교환기), CCTV, CATV(유선방송), 유선 Paging설비, 무선폭출기, 전관구내

방송설비들이 구비되어있으며, LAN의 구성도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장차 진료에 대비하여 Image data를 송,수신 할 수 있고 영상(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통신 케이블 Network을 구성중이며, 위성 수신 안테나, 공청안테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방송의 선택이 다양하게 되고, 국내외 최신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병동에는 병상당 전화가 보급되고 TV가 설치 되므로 입원환자는 각자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들을 이용 할 수 있을것이며 전화도 최신의 전화교환기 설비이므로 고장율, 애러율이 극히 적은 통신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것의 운영상태 역시 컴퓨터에 의해 제어 및 기록,관리 될 것이다.

넓은 건물, 충분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행여나 방법에 문제가 있이나 않을까?하여 주요부분에 34대의 CCTV를 설치 하였으며, 주차장에도 CCTV가 관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완벽한 방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정보통신 부분은 Intelligent Hospital의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환자는 전화로 진료예약 및 접수가 가능하고 자동 전화안내(ARS) 및 음성사서함(VMS)은 이들을 더욱 원활히 되도록 할 것이다. 외래 환자도 진료접수 순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번호발행기를 설치 하여 접수와 동시에 원하는 진료과에 자동으로 순번이 등록되어 진료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진료후 수납하면 곧바로 약국에 처방이 전산으로 전달되고 약국의 자동조제 장치에 의하여 환자에게 바로 약을 공급 할 수 있을것이므로 투약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환자는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의 건축적인 시설

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병상당건 측면적은 약 28평으로, 이는 타병원들보다 상당히 넓어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것이며, 복도 또한 비교적 넓고, 높아 시원스런 실내공간을 느낄것이다. 1층 외래 LOBBY 부분은 자연채광을 흡수하게끔 3개층을 Atrium으로 처리하여 시원스럽고 넓은 실내에서 하늘을 볼수있게끔 만듦으로서 하나의 병원 LOBBY라기 보다는 휴양소(?) 같은 분위기를 갖게될 것이다. 외래 각 진료과 접수대기실 공간 역시 전문 인테리어 설계에 의해 시공 되므로 일반 병원들 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공간을 갖게 되리라고 본다.

응급실은 연면적 450여평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이며 어느정도의 응급환자는 전부 수용 할 수 있을것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의료혜택을 제공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병원 건물의 외형은 전통적인(?) 아주대학교 건물의 형태이지만 외벽 저층부는 화강석으로 마감하고, 고층부는 화강석 질감이 나는 석재 뿔칠로 마감하여 석조건물같은 질감을 느낄수 있는 중후한 외양이 될 것이다.

넓은 조경공간은 연차계획에 의하여 조경 식재가 이루어질것이며, 아늑하고 아름다운 건물과 조화된 조경이 되어질수 있도록 계획, 설계 하였다.

이러한 좋은 시설환경을 갖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모두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건축기획본부 과장

박 정 로

병원장 칼럼

의료계의 경쟁은 첨단 의 우수 장비 구비 여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인간성이 넘치고 개념의 권위를 갖춘 병원이 되어야 첨단의 병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대학병원이 미래지향적인 인텔리전트빌딩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자랑하지만 이같은 표현이 내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를 잘 바로잡아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병원에 대한 영상(image)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인텔리전트빌딩」 하면 우선 병원의 천정 속에 거미줄 같이 뻗어 엉켜져 있는 전선들과 부서마다 설치된 전산기를 연상한다. 그리고 이 전산망이 마치 인간에 있어서 뇌(腦)와 같이 모든 병원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전산기를 조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일할 수 없고 이 기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인식이 된다. 병원의 공간도 전산기와 그 연락망을 제일 중요하게 배려해서 꾸며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기계중심의 사고방식은 자칫하면 이 병원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전산기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인텔리전트빌딩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전산기에 숙달되어 있고 전산기의 기능과 같이 정확하게 머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대학교병원의 주인은 전산기나 고가 의료장비 같은 기계가 아니라 이곳에 드나드는 환자들과 이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다. 환자나 직원들의 위상이 기계보다 높아야 하고 공간도 전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디자인 되어야 하며, 우선 기계를 먼저 장치하고 남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안된다. 아무리 자동차가 많아져도 서울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서울시민이어야 하는 것과 같이, 아주대학교병원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주인이고 인간을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의술의 기계화가 가져오는 인간소외, 노동소외,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된다. 우리가 첨단 의료기계를 설치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병원이 우수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의 경쟁이 결코 우수한 장비의 구비 여부를 가지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첨단의 기계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성을 가지고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병원의 우열이 결정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대학병원은 개념의 권위를 가진 병원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단순히 환자를 생물학적, 또는 기계기술만 가지고 치유시키는 곳이 아니라 삶에 딸린 환경, 문화, 생활양식, 정신, 영혼 등의 치유인자가 모두 개입될 수 있는 모델로 환자를 치유시키는 곳이어야 한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성이 넘치는 권위 있는 병원이 최첨단의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구비했을 때 우리는 세계 어느 병원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첨단의 병원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李 鎬 榮